

사회



7일 광주시 북구 동운고가 내리막길 지점의 가드레일 하단 파이프가 녹이 슬어 차량의 충돌이나 추락을 막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가드레일 뒤면에 설치된 방음벽은 추락 방지 및 충격 흡수 기능이 전혀 없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녹슬어 부식 ... 찌그러지고 ... 기둥에서 이탈까지

# 고가도로 가드레일 '위험천만'

## 광주 동운고가 등 곳곳 부실 방치

지난 3일 인천대교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로 추락. 1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지 나흘이 흐른 7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동운고가. 경신여고 방향 내리막 도로 우측에 설치된 길이 2m·지름 10cm 파이프형 가드레일 10여개가 심하게 녹이 슬어 방치돼 있었다. 가드레일 옆으로는 차량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다.

기자가 부식된 가드레일에 손을 대자 녹가루가 우수수 떨어졌다. 부식이 심한 가드레일의 경우 손으로 살짝 잡아당기자 구부러지는 것도 있었다. 고가도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자 더욱 불량한 상태의 가드레일이 눈에 띄었다. 녹이 슬 10여개의 가드레일 중 일부는 바닥에 연결된 지지대가 교량에서 분리돼 있었다. 동운고가 교량 길이는 300m. 파이프

가드레일 길이는 교량과 연장부분(100m)의 양쪽을 포함해 모두 800m이며, 높이는 1m이다. 제한속도가 60km 미만임을 감안해 강도는 SB(Safety Barrier)2급(충격도 16도). 동운고가 규정에 적합했다. 그러나 관리되는 걸로 보기에 매우 부실했다. 광주일보가 광주지역 주요 고가도로를 확인한 결과 심하게 녹이 슬 가드레일이 발견되는가 하면 위아래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지지대가 녹이 슬어 파이프에서 이탈되거나 교량 바닥과 따로 노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처럼 가드레일 상태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차량들이 제

한 속도를 넘어 시속 80~100km로 달리고 있어 인천의 경우와 같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특히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많고 내리막길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해 보였다. 동운고가 내리막길의 가드레일 한 부분은 사고 충격으로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지만 수개월째 방치돼 있었다. 이미 제 기능을 잃을 정도로 훼손돼 있는 가드레일에 차량이 부딪친다면 고가도로를 벗어나 대형사고 이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

동운고가 중 운암동-무등경기장 방향 다리는 지난 1973년에 건립됐으며, 신세계백화점-경신여고 방향은 1989년에 세워졌다. 그러나 동운고가는 2004년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07년 슬래브 보강 및 교량 상부 신축이 을 장치고 교체 등의 조치만 이뤄졌을 뿐 철제 가드레일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3시 송정고가에서도 한쪽 끝이 고정대에서 분리돼 있는 파이프형 가드레일이 발견되는 등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한쪽 끝이 고정대에서 분리돼 있는 파이프형 가드레일이 발견되는 등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고강도 가드레일 설치 광주시·전남도

전남도는 7일 사고 위험이 큰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 구간에 대해 고강도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도로 설계 과정에서 도로 구조와 차량 흐름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16개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각 도로마다 설치된 가드레일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태근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최근 정부 도로정책 방향과 운전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로 환경과 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같은 날 오후 3시 송정고가에서도 한쪽 끝이 고정대에서 분리돼 있는 파이프형 가드레일이 발견되는 등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여수해경 끈질긴 신원 확인 백발의 변사자 유족 찾았다

### 화장 후 DNA 감정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원불상의 70대 노인이 해경의 끈질긴 신원 확인작업 끝에 유족의 품에 안겼다.

7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20분께 여수시 삼산면 초도 해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숨진 채 방파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당시 변사자는 백발에 틀니를 하고 있어 노인으로 추정될 뿐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자 관련법에 따라 같은 달 25일 화장한 뒤 여수 시립공원묘지 납골당에 안치했

다. 그러나 여수해경 김계빈(32) 형사와 해경청 과학수사센터 박해진(35) 실무관은 변사자를 애타게 찾고 있을 유족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신원확인작업에 매달렸다. 두 사람은 실종자 등을 대상으로 연령대와 틀니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시신이 발견된 지 한 달 19일 만인 지난달 19일 결국 시신이 최모(36)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 4월 6일 완도에서 실종된 최씨의 아버지와 최씨에 대한 DNA 감정을 통해 부자관계를 확인했다.

유족들은 "두 사람이 아니었던 경생 불화가 될 뻔 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강운태 시장 비방 5·18단체 회원 영장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민주당 광주시당 후보 경선에 앞서 한 달 동안 강운태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강 후보의 행적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수감자 실의운동 제한은 위법"

### 범원 1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광주교도소 독방에 수용된 박모씨가 실의운동을 못했더니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 특히 독방 수용자의 입장에서 실의운동은 유일하게 햇빛을 접할 수 있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기회라는 점에서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척도"라며 "실의운동을 제한한 위법행위로 박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의 '운수목적 실시로 인력이 부족해 실의운동을 제한했다'는 주장은 "관련 법령상 실의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수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발생 등에 한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 건설현장 납품 경유량 속여 18억 '꿀깍' 30대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서울과 전남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경유량을 속여 18억원어치의 기름을 빼돌린 김모(36)씨 등 D유류업체의 직원 5명에 대해 사기 혐의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D사의 다른 관계자 3명과 이틀한테서 돈을 받고 범행을 묵인한 시공사 관계자 5명, 기름을 불법 처분해준 업자 9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D사 직원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전남 등 전국의 건설현장 18곳의 굴착기와 불도저 등 중장비에 쓸 경유를 납품하면서 양을 속이는 수법으로 약 127만ℓ(17억8000여만 원 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유조차로 중장비에 경유를 넣으면서 차량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현장 관계자에게 100만~600만원을 주고 허위 주유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통상 납품하던 기름양보다 10% 적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결혼문제 말다툼 30대 여성 투신

7일 오전 9시15분께 여수시 화강동 모 아파트에 사는 정모(여·35)씨가 이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1층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신음 증인 것을 주민이 발견,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정씨는 동거남(35)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정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이번엔 여고생이 성폭행 당할뻔

### 어제 새벽 운남동서 ... 30대 남성 소리치자 도주

### 경찰, 탐문수사

광주시 광산구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 초등생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인근에서 여고생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새벽 0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고생 A(17)양을 강제로 끌고 가 인근 풀숲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A

양이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 다.

이번 범행 장소는 지난달 29일 일어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성추행 사건 장소와 직선거리로 600m 떨어진 곳이다. 범인은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A양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몰래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 한 켤레가 발견됐다. 경찰은 키 178cm에 흰색 반 팔 셔츠·회색바지를 입은 호리호리한 체

격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동종전과자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또 아파트 상가 주변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화면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는 등 범인의 뒤를 쫓고 있다.

한편, 북부경찰은 이날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여고생의 가슴을 만진 광주 모 중학교 2년 조모(15)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아동성폭행범 검거·출동 실적점수 대폭 올렸다

'아동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관의 실적점수를 대폭 올려 아동 성폭행범 검거와 범행예방을 독려했다고 했다.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관의 실적평가에서 아동성폭행범 관련 검문검색이나 신고출동 점수는 일반 강간 사건의 두 배를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범인 김길태 사건 이후 지역경찰관이 강간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25점, 검문검색했을 때 30점을 부여했다. 이에 더해 아동 성폭

행 사건 검문검색에는 60점, 신고출동에는 50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역경찰관 실적평가 점수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현재는 강간과 함께 침입·인질 강도 검문검색 시 30점이 부여돼 점수가 가장 높다. 경찰은 또 범죄예방 활동을 독려하고자 아동성범죄가 발생하면 담당 지구대나 파출소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이 7일 오전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성폭력 특별수사대'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 후배 방 놀러가 돼지저금통 '슬쩍'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숙소에 놀러간 뒤, 후배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돼지저금통을 훔쳐 달아난 '뚝뚝' 선배가 경찰서행.

○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21·경남 남해읍)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6시께 광주시 동구대인동의 한 모텔에 사는 후배 장모(여·19)양의 방에서 현금 18만원이 든 지갑과 현금 8만원이 든 돼지저금통 등 26만원을 몰래 가져갔다.

○유형업소 여중점원인 이씨는 후배가 방을 얻어 지내는 모텔에 놀러갔다가 장장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 돈을 훔쳐갔는데, 경찰에서 "돼지저금통을 보자 순간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hearing aid device and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자연과 같은 소리로 들리도록 합니다.' (Makes you hear like nature), '청력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hearing aids), and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립니다.' (We help you get rid of hearing loss). At the bottom,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본점: 광주광역시 남동성당사거리 227-9940' and '충장점: (구남동동리) 227-9970'.